

스와치, 수소연료 자동차 개발

테스트 결과 연비 높아 ... 상용화모델 경제성은 확신 못해

세계 최대의 시계 제조기업인 스위스의 스와치가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자의 아들인 니컬러스 하이에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스위스 NZZ 암 존탁 신문과 가진 3월25일자 회견에서 “이미 테스트를 위한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었다”며 “액화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매우 높은 연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와치 산하 자동차 개발기업인 벨레노스 이사회가 시승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용모델 생산이 경제적인지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스와치는 1997년에도 다임러-벤츠와 2인승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를 합작 개발했으나 이후 지분을 다임러 측에 넘기고 손을 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6>